

'26.10월 금융시장 전망

국내외 채권시장 전망

Executive Summary

'26.10월 금융시장 전망

01 이슈

- [미국 금리 인상기] 이번 전체 인상폭은 50bp 이하를 예상하며, 데이터를 확인해가며 인상 종료할 전망
- 지금은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인플레이와 텀프리엄 모두 불안. 미국 금리 연내 높은 흐름 이어갈 전망
- [한국 금리 레벨] 대외적으로 에너지 2차 충격 발생, 미국의 인상도 부담. 대내적으로는 외인 수급 공백 우려
- 최근 기준금리-3년 스프레드가 과거 대비 높게 형성. 이런 특이점이 인상후 동결 초입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음

02 미국 국채시장

[연내 추가 1차례 인상 후 동결 전망, 듀레이션 중립 유지]

- 연내 추가 1차례 인상 전망. 시점은 12월이 유력. 내년에는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속 동결 예상
- 인상 개시에 따른 상방 압력 존재. 중립실질금리의 하방경직성과 물가 불안이 결합되며 텀프리미엄을 자극할 것
- 듀레이션은 중립 전략 유지. 연내 10년물 금리는 5%대 초반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될 것. 커브는 스티프닝 전망

03 한국 국채시장

[연내 추가 1차례 인상 후 동결 전망, 듀레이션 중립 유지]

- 7~8월 연속 인상 후 한은의 속도 조절 의지가 명시됨에 따라 10월 동결, 11월에 최종금리 3.25%로 인상 예상
- 대내적으로 인상 마무리 단계이나 대외 금리 상방 압력 잔존. WGBI 편입 완료 이후 외국인 수급 공백도 불안
- 듀레이션 중립 유지. 물가 추가 안정화 확인 필요. 커브는 인상 후반기 수준 고려 40bp 수준에서 등락 전망

04 크레딧

[스프레드 추가 확대 전망]

-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 변동성 확대 불가피. 과거 긴축 초입 국면에서 미국 크레딧 수익률 악화
- 역사적으로 하이일드/투자등급 스프레드 배율 낮아진 가운데, 하위등급 부정적 영향 확대되는 모습
- 미국 크레딧 투자전략 듀레이션 축소로 변경. 미국의 인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스프레드 추가 확대 압력에 주의

글로벌 채권 Review

'26.10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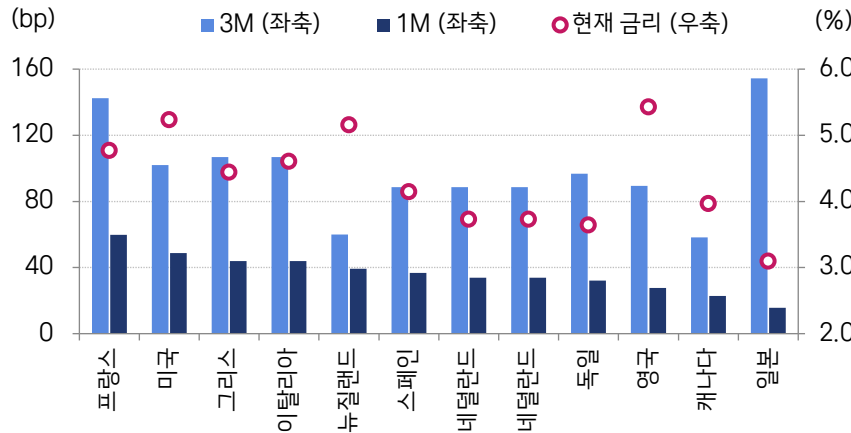
		글로벌 종합	선진국 정부채	글로벌 투자등급	글로벌 하이일드	미국 정부채	유로존 정부채	미국 투자등급	미국 하이일드	유럽 투자등급	유럽 하이일드	신용시장 정부채 (\$)	신용시장 정부채 (LC, U\$ H)	신용시장 정부채 (LC, U\$ UH)	한국 국공채	한국 회사채
Performance	1M %	(1.98)	(1.77)	(2.37)	(2.10)	(1.76)	(1.99)	(2.05)	(1.84)	(1.53)	(1.49)	(2.33)	(0.38)	(2.04)	(0.24)	(0.01)
	3M %	(2.07)	(1.70)	(2.89)	(1.13)	(2.54)	(4.26)	(3.27)	(1.14)	(2.70)	(1.32)	(2.87)	(0.65)	(1.13)	(0.82)	0.45
	YTD %	(2.27)	(2.61)	(2.72)	0.35	(2.27)	(3.06)	(2.44)	0.80	(1.41)	0.49	0.36	1.03	2.37	(5.90)	0.35
	1Y %	(2.04)	(3.04)	(1.97)	1.49	(1.38)	(2.82)	(1.63)	2.12	(1.14)	1.05	3.65	2.74	6.77	(8.48)	0.13
	3Y %	12.34	8.44	18.08	28.16	10.42	6.45	16.50	26.95	12.26	20.73	33.40	18.43	34.60	5.57	12.14
Spread	현재 bp	44.6	9.2	83.4	299.6	-	-	79.6	293.5	87.2	283.9	236.4	-	-	-	-
	1M bp	1.6	1.3	3.4	26.9	-	-	1.8	32.1	8.3	23.5	1.8	-	-	-	-
	3M bp	(0.4)	1.7	5.6	16.9	-	-	5.4	23.8	7.3	14.4	0.9	-	-	-	-
	YTD bp	0.0	2.2	3.6	17.6	-	-	2.1	27.2	8.8	18.7	(17.1)	-	-	-	-
	1Y bp	(7.5)	0.5	5.8	19.4	-	-	5.8	26.5	8.3	19.2	(47.1)	-	-	-	-
	3Y bp	(4.6)	(5.1)	(51.2)	(121.9)	-	-	(41.3)	(100.8)	(66.2)	(147.0)	(194.4)	-	-	-	-
YTW	현재 %	4.40	4.02	5.45	7.77	5.05	3.89	5.93	8.10	4.27	6.32	7.23	-	6.48	4.26	-
	1M bp	33.3	29.1	43.7	75.4	44.0	38.7	44.1	82.3	44.7	66.8	2.5	-	14.6	14.1	-
	3M bp	59.6	54.2	75.0	90.1	68.6	80.7	73.6	93.9	84.5	97.3	30.5	-	37.9	29.3	-
	YTD bp	87.6	83.4	110.0	146.5	116.4	97.9	112.0	156.6	107.7	137.0	42.0	-	60.7	111.8	-
	1Y bp	91.6	90.2	113.6	133.6	111.2	105.1	112.3	140.1	121.1	145.4	14.5	-	55.1	152.3	-
	3Y bp	17.8	50.9	(21.4)	(109.1)	19.5	36.9	(10.9)	(78.2)	(19.5)	(145.5)	(181.0)	-	(28.3)	30.7	-
Duration	현재 년	6.16	6.65	5.78	3.50	5.66	6.82	6.63	3.55	4.50	3.30	6.17	-	5.20	7.08	-

자료: Bloomberg / 주: 신흥국 달러표시 정부채-JP morgan EMBIG Diversified Core, 신흥국 로컬통화표시 정부채- JP morgan GBI-EM, 그 밖의 지수는 Bloomberg Barclays, 9.28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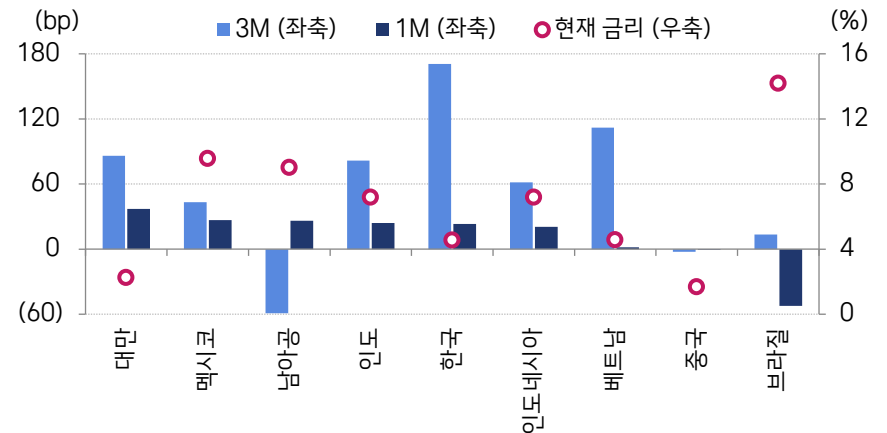
글로벌 채권 Review

'26.10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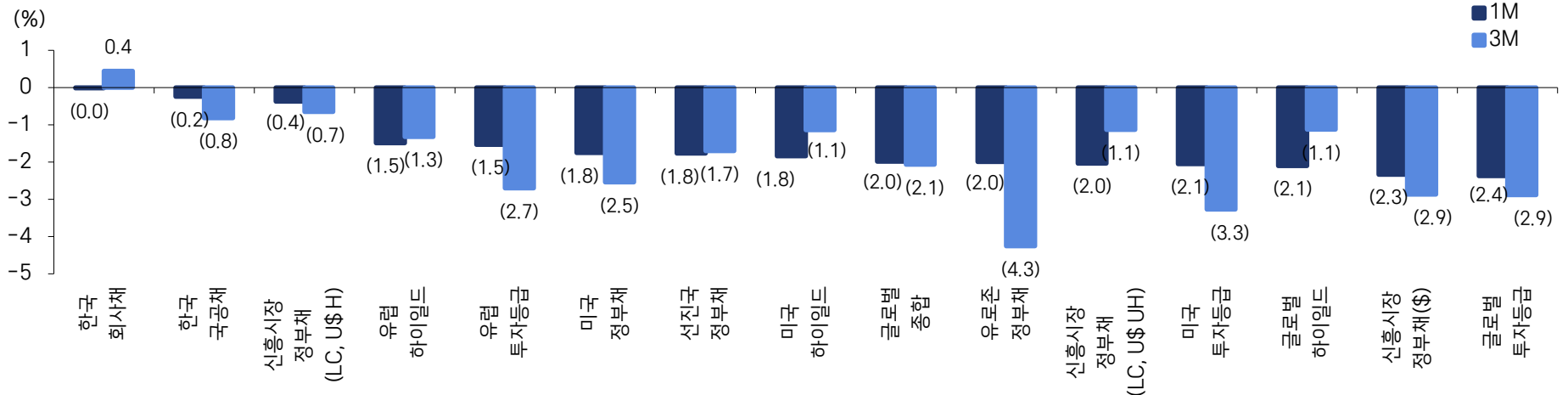
선진국 국채 10년 금리 변동과 현재 금리



신흥국 국채 10년 금리 변동과 현재 금리



채권 자산군별 총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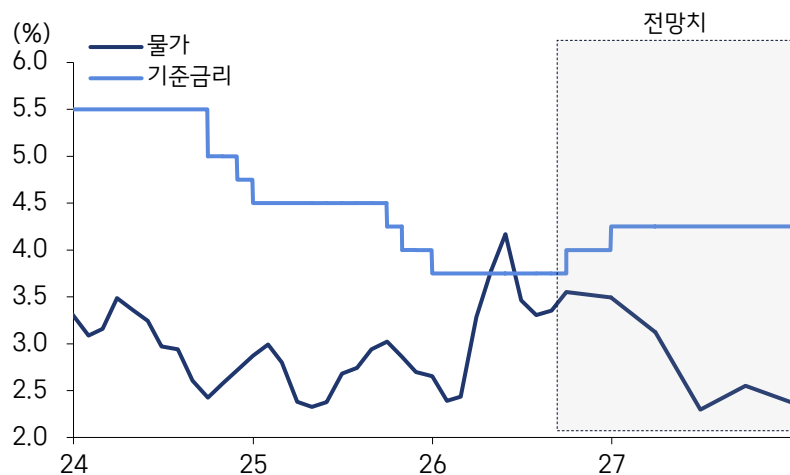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 신흥국 달러표시 정부채-JP morgan EMBIG Diversified Core, 신흥국 로컬통화표시 정부채- JP morgan GBI-EM, 그 밖의 지수는 Bloomberg Barclays, 9.28일 기준

통화정책 하우스부

'26.10월 금융시장 전망

[미국] 연내 추가 25bp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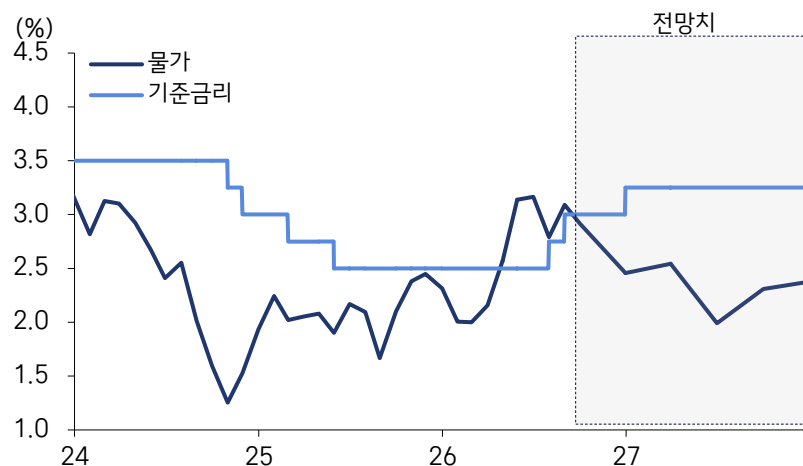
- 9월 회의에서 연준의 인플레이 대응 의지 확인. 시점은 12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나 10월도 열려둬야 함. 10월에 공개될 9월 물가에서 인플레이 확대가 확인될 것이기 때문
- 소비자물가는 YoY 기준 9~10월 고점 통과하나, 이후 경로는 기존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만하게 둔화될 것. 완만하지만 디스인플레이 진행중이라는 연준의 진단 하 내년은 동결 전망. 올해 12월 끝으로 인상 종료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한국] 11월 추가 인상해 최종금리 3.25%

- 8월 금통위에서 7월과 8월 연속 인상 이후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 직접적으로 명시. 지난 인상에 대한 효과 점검하기 위한 전략적인 10월 동결, 이후 회의인 11월 추가 인상 예상
- 11월 회의에서 제시될 내후년 성장률 주목. 반도체 사이클이 내후년까지 계속 확대될 가능성 크지 않아 내후년 2% 초반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 이를 인식해가며 최종금리 3.25%로 내년은 동결 가능성 높다고 판단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3개월 투자전략 하우스뷰

'26.10월 금융시장 전망

[미국] 듀레이션 중립 (단기 금리 상승 압력)

- 인상 시작에 따른 금리 상방 압력. 추가 인상 우려와 최종금리 불확실성도 가세
- 경기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중립실질금리는 하방경직적. 유가 2차 스파이크 이후 9~10월 물가 상승폭 확대에 따라 기대인플레이 불안, 고점 통과 이후에도 물가 경로가 예상보다 높아 기대인플레이 안정은 더딜 전망. 중간선거 전까지 텀프리 미엄도 상방 압력
- 연내 10년물은 5%대 초반에서 고착되며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 상방 압력에도 듀레이션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5%대 금리 레벨의 캐리 매력과 12월 인상 종료 시 상단이 제한될 가능성 때문

미국	4Q26	1Q27	2Q27	3Q27	4Q27
기준금리	4.25	4.25	4.25	4.25	4.25
국채 2년	4.40	4.20	3.90	3.90	3.90
국채 10년	4.90	4.80	4.50	4.40	4.40
2/10 스프레드	0.50	0.60	0.60	0.50	0.50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한국] 듀레이션 중립. 금리 변곡점 지연

- 대내 요소로만 보면 인상기 후반기에 진입했으나 미국 인상 에 따른 대외 금리 상방 압력
- 올해 국채 수급 주요 순매수 주체는 외국인으로 WGBI 수요 덕분. 11월부로 WGBI 편입이 완료되며 관련 패시브 유입이 소멸되는 점도 우려스러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매월 2~3조원 수준의 패시브 외국인 자금 수급 공백
- 물가 2차 스파이크 통과, 수급 공백을 메워줄 주체 확인, 11월 금통위 때 제시하는 28년 성장률 등을 확인하고 미리 듀레이션 전략 조정하기 보다는 사후적으로 확대 전환하는게 낫다고 판단

한국	4Q26	1Q27	2Q27	3Q27	4Q27
기준금리	3.25	3.25	3.25	3.25	3.25
국고 3년	4.00	3.90	3.60	3.30	3.20
국고 10년	4.40	4.20	3.90	3.60	3.50
3/10 스프레드	0.40	0.30	0.30	0.30	0.30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26.10월 금융시장 전망

미국 금리 인상기

과거 미국 금리 인상기와 지금

'26.10월 금융시장 전망

90년 이후 총 7차례의 금리 인상기. 적게는 25bp 부터 많게는 525bp 정도 인상폭

- 이번 금리 인상은 강력한 긴축 사이클이기보다는 기존의 완화적인 조치를 회수하는 정도의 조정
- 과거 사이클 인상폭과 인상 속도를 고려하면 97년과 15년 사이클과 비슷한 정책 환경

금리 인상 사이클(첫 인상일)	6개월 후 누적 인상폭(기준 시점) 12개월 후 누적 인상폭(기준 시점)		금리 변화 (시작 → 고점)	사이클 전체 총 인상폭
94년 사이클(1994.02.04)	+175 bp (94.08.16, 4.75%)	+300 bp (95.02.01, 6.00%)	3.0% → 6.0%	+300 bp
97년 사이클(1997.03.25)	+25bp (97.09.25, 5.50%)	+25bp (98.03.25, 5.50%)	5.25% → 5.50%	+25 bp
99년 사이클(1999.06.30)	+75 bp (99.12.31, 5.50%)	+175 bp (00.06.30, 6.50%)	4.75% → 6.50%	+175 bp
04년 사이클(2004.06.30)	+125 bp (04.12.14, 2.25%)	+225 bp (05.06.30, 3.25%)	1.00% → 5.25%	+425 bp
15년 사이클(2015.12.16)	+25bp (16.06.16, 0.50%)	+50 bp (16.12.14, 0.75%)	0.25% → 2.50%	+225 bp
22년 사이클(2022.03.16)	+300 bp (22.09.21, 3.25%)	+450 bp (23.03.22, 4.75%)	0.25% → 5.50%	+525 bp
26년 사이클(2026.09.16)	+50 bp (26.12.9, 4.25%)	+50 bp (27.09.16, 4.25%)	3.75% → 4.25%	+50 bp

자료: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지금의 인상은 미세 조정 + 데이터 확인형

'26.10월 금융시장 전망

이번 전체 인상폭은 50bp 이하를 예상하며, 데이터를 확인해가며 인상 종료할 전망

- 미세 조정 성격은 97년 단발성 인상과 비슷하나, 97년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동반. 지금은 자산 붕괴와 신용 위기 가능성 낮음
- 데이터 확인 성격은 94년과 15년과 비슷. 금리 하락을 야기하는 요인은 인상이 마무리돼 가면서 확인되는 지표 둔화
- 워시가 언급한 데이터 기준으로 PCE 199개 항목 중 3%가 넘는 항목의 변화. 농산물 현물 가격과 에너지 크랙 스프레드 확인 필요

인상폭 \ 금리 하락트리거	데이터 확인형 (Data-dependent) (지표 둔화 확인에 따른 안정화)	위기 전이형 (Risk-off) (자산 붕괴 및 신용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쏠림)
1. 미세 조정형 (총 인상 폭 50bp 이하)	26년 9월~ 현재 국면 (하우스부) - 향후 6개월 내 물가 안정(2%대) 확인 필요 (선제 타격 효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진압되는 경로)	97년 단발성 인상 (+25bp) - 97년 하반기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 (자국 긴축 영향보다 신흥국의 약한 고리가 먼저 터짐)
2. 표준 대응형 (총 인상 폭 150~300bp)	94~95년 사이클 (+300bp) - 95년 초 고용·소비·주택 지표 급격 둔화 (신속한 선제 긴축 후 연착륙 데이터 확인) 15~18년 사이클 (+225bp) - 18년 말 미·중 무역전쟁 및 제조업 쇼크 (공급망 갈등으로 경기 하강 지표 직접 확인)	99~00년 사이클 (+175bp) - 2000년 3월 나스닥 닷컴 버블 붕괴 (긴축 여파로 과열된 주식 시장의 거품이 붕괴)
3. 초강력 긴축형 (총 인상 폭 400bp 이상)	강도 높은 긴축 후에는 통상적으로 데이터 둔화 전에 경제 위기/충격이 발생	04~06년 사이클 (+425bp) - 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장기 고금리 누적으로 가계·부동산 부실 폭발) 22~23년 사이클 (+525bp) - 23년 SVB 사태 등 은행 파산 (초고속 인상으로 은행 보유 채권 평가손실 폭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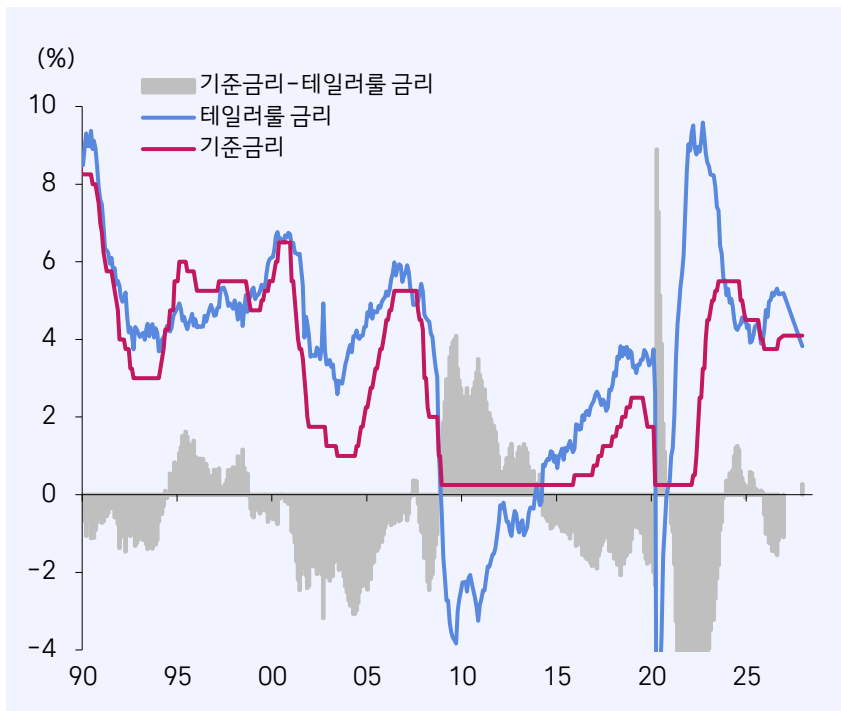
자료: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지금의 인상은 미세 조정 + 데이터 확인형

'26.10월 금융시장 전망

인상의 시작은 미세 조정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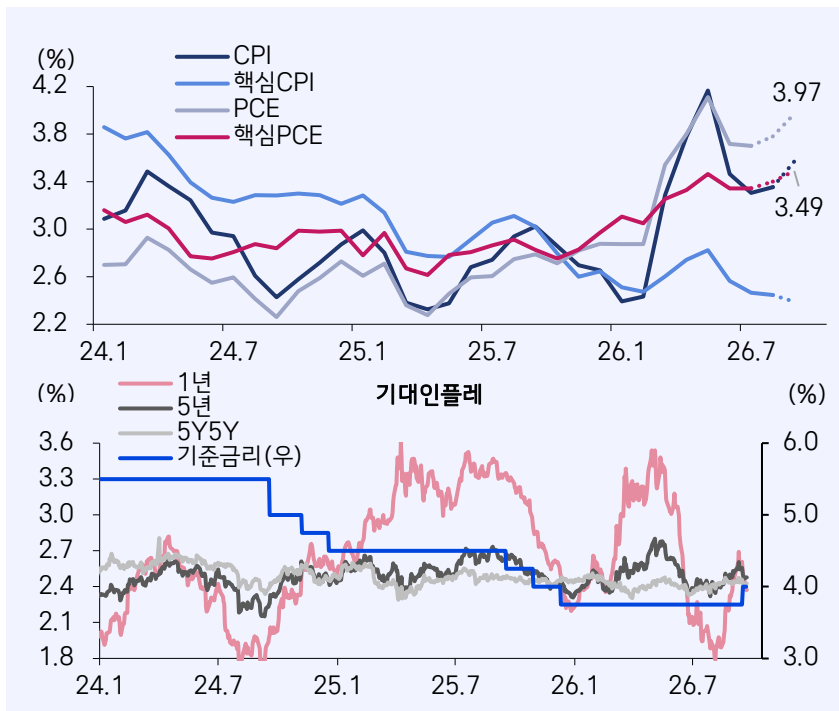
- 추세적인 인플레이 확대가 올해 일시적인 부분
- 실업률 또한 추가로 하락하기 보다는 현 수준에서 등락
- 이런 상황 하 테일러룰이 시사하는 금리 인상은 100bp 미만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인상을 마무리 짓는 건 데이터 확인

- 중동 갈등이 재차 깊어지며 유가 2차 스파이크 발생
- 이로 인해 재차 상승한 중장기 기대인플레도 지켜봐야함
- PCE 개정 이슈를 고려하더라도 당장 8~10월 인플레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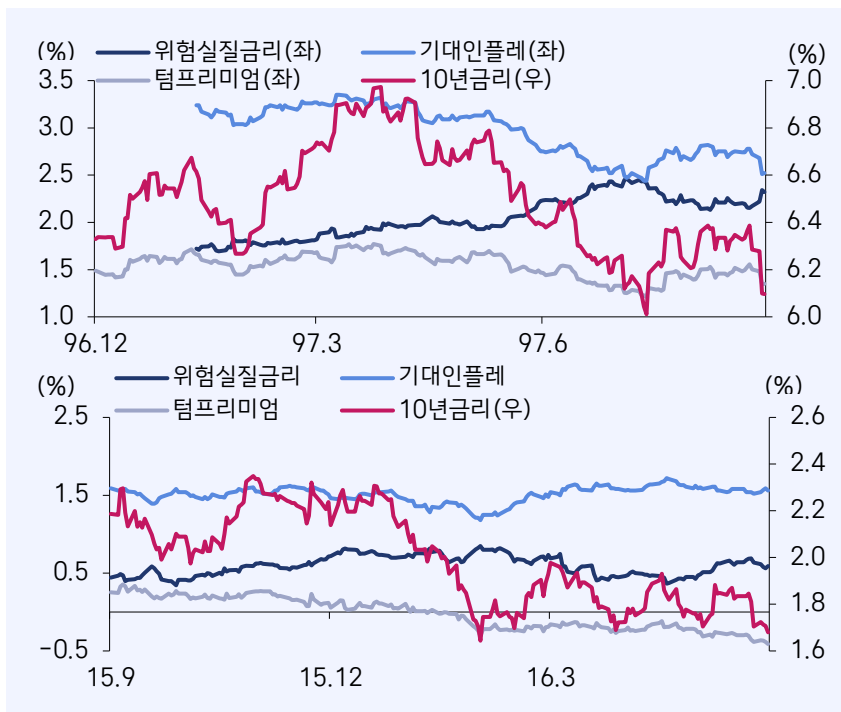
자료: Cleveland Fed,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높게 머무를 미국 금리

'26.10월 금융시장 전망

과거 미세 인상 당시 금리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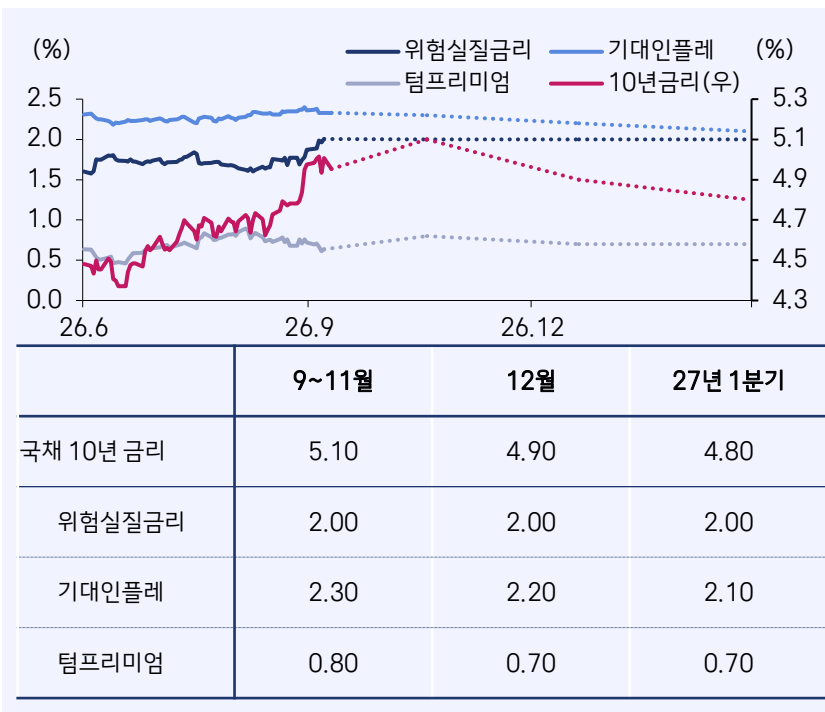
- 97년과 15년 당시 인상폭도 적었지만, 기대인플레이와 텀프리미엄 하락이 동시에 발생해야 금리도 안정된 바 있음
- 지금은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인플레이와 텀프 모두 불안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미국 금리 높은 흐름 이어갈 전망

- 소비와 투자 등 경기는 견고하며, 기대인플레이 하향은 더딜 것
- 텀프리미엄은 재정과 AI 회사채 발행 등에 상방 압력 잔존
- 연내 10년물 5%대, 내년 1분기로 갈수록 4% 후반 진입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26.10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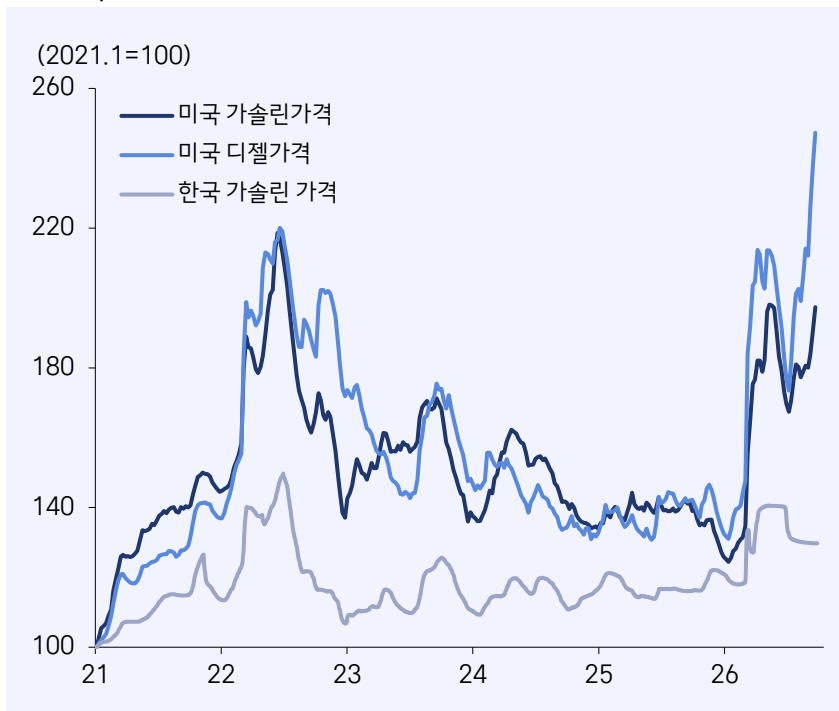
한국 금리 레벨

대외 요인: 에너지 2차 충격, 미국 금리 상승

'26.10월 금융시장 전망

중동 갈등 심화되며 유가 2차 스파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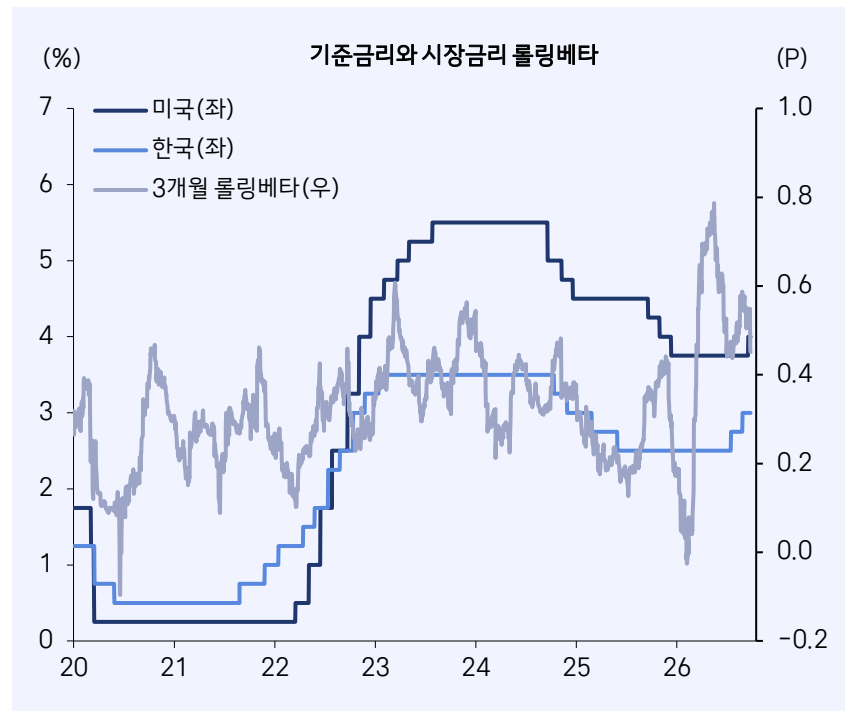
- 미국 디젤가격은 갤런당 6달러 중반으로 사상최고치. 가솔린 가격은 4달러 후반으로 올해 4월 전쟁 발발 직후 수준
- 한국은 석유 최고가격제도로 6.27일 이후 동결 유지하고 있으나, 최고가격 인상 여부 및 출구전략 필요성 제기



자료: CEI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대외 금리 상승에 연동된 대내 금리

- 9월 이후 미국 10년물은 4.8%에서 5.2%로 40bp 상승. 최근 미국 → 한국 금리 베타(기울기)가 0.5 수준
- 한국 10년물은 4.3%에서 4.5%로 20b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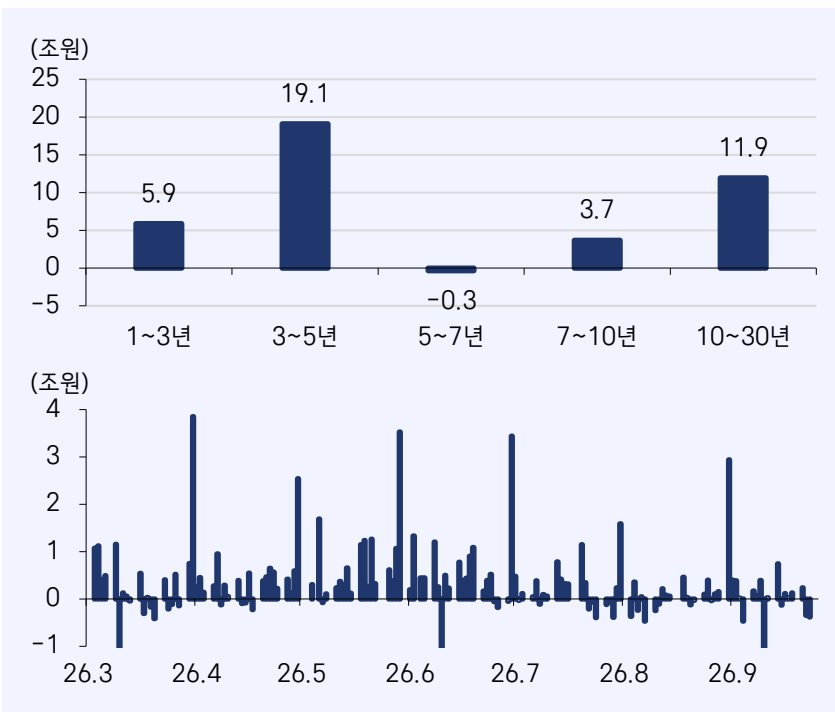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대내 요인: 외국인 수요 공백

'26.10월 금융시장 전망

WGBI 편입 후 외인 국채 순매수 40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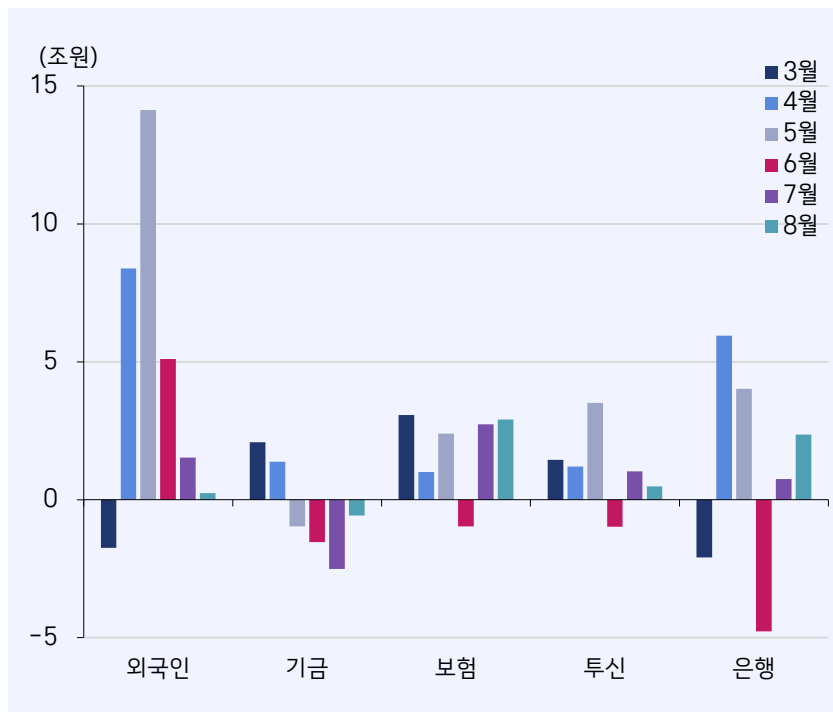
- 9월과 10월말도 이에 비례해서 들어온다면 54조원 예상
- 매월 마지막 2~3거래일에 일본계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매월 3조원 정도로 유입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8.31일 기준 (위), 9.28일 기준 (아래)

11월 이후 외국인 수요 공백

- 대외 요인이 불안한데 더해지는 대내 수요 공백 요인
- 올해 주요 국채 순매수 주체는 외국인. 향후 수요 공백 불가피. 중장기물은 WGBI 편입 종료, 단기물은 재정거래 유입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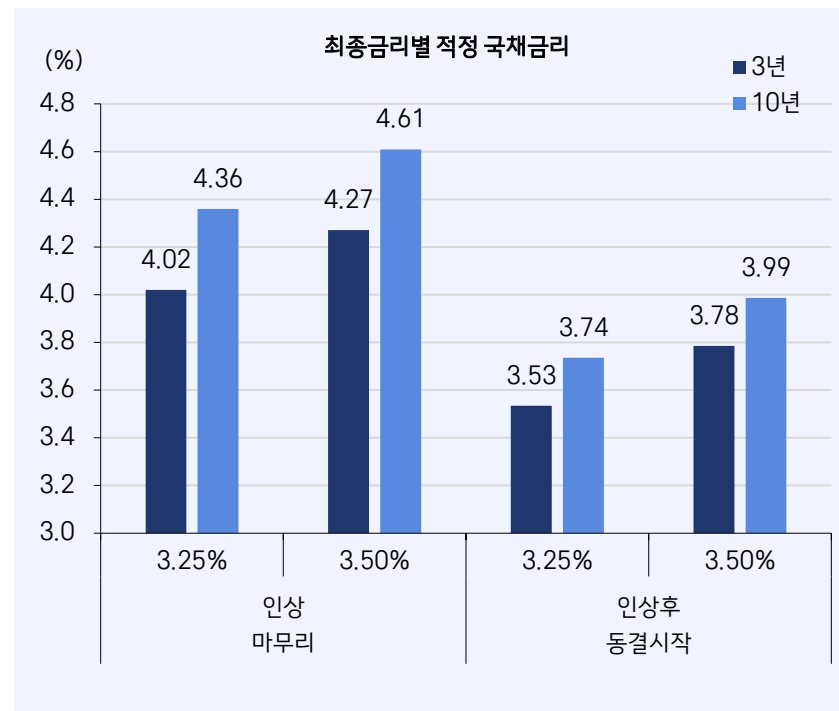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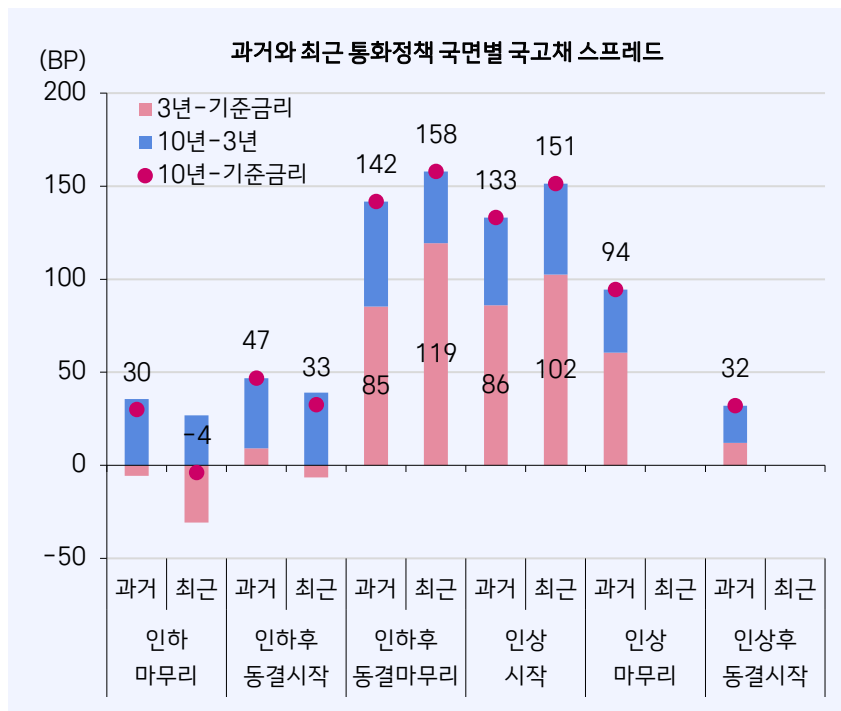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금리 레벨에 대한 고민

'26.10월 금융시장 전망

25년 이후 통화정책 사이클 속 금리 레벨 특이점

- 25년 이후 통화정책 사이클 속 금리 레벨 특이점은 인하~동결 시작 국면에서는 단기물 금리가 눌러 있었음. 반면, 동결 마무리~인상 시작 국면에서는 단기물 금리가 과거 대비 높게 형성. 이런 특이점이 인상후 동결 시작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음
- 최종금리 3.25% 기준, 인상 마무리 국면(올해 4분기)에서 10년물 4.4%. 이후 동결 시작 국면(내년 2~3분기) 3.7%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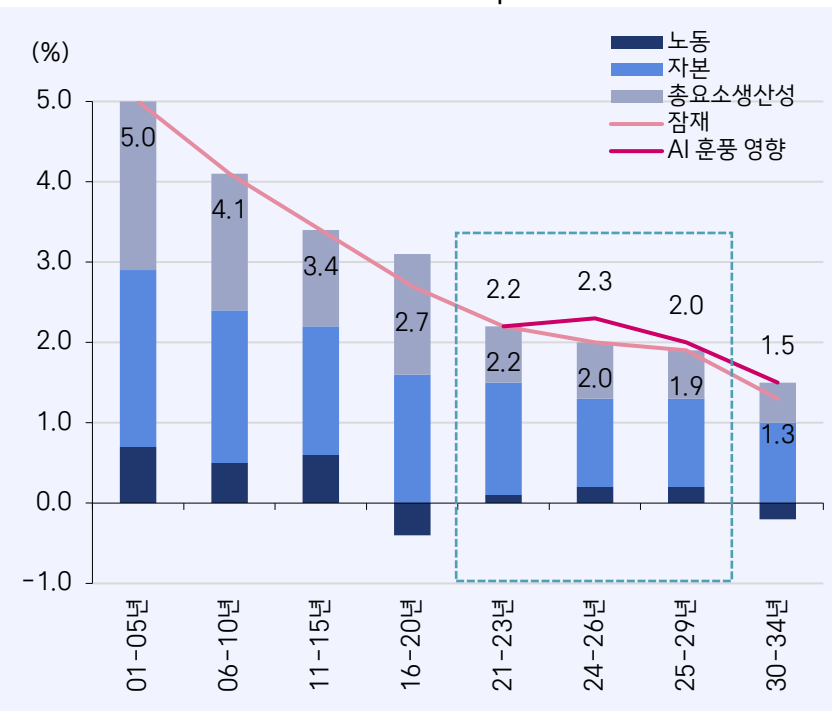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통화정책 구간 시작과 마무리는 첫 인상/인하 직전/직후 3개월

극심했던 저성장, 저물가 우려의 되돌림 국면

'26.10월 금융시장 전망

중기 시계로 잠재성장률 일시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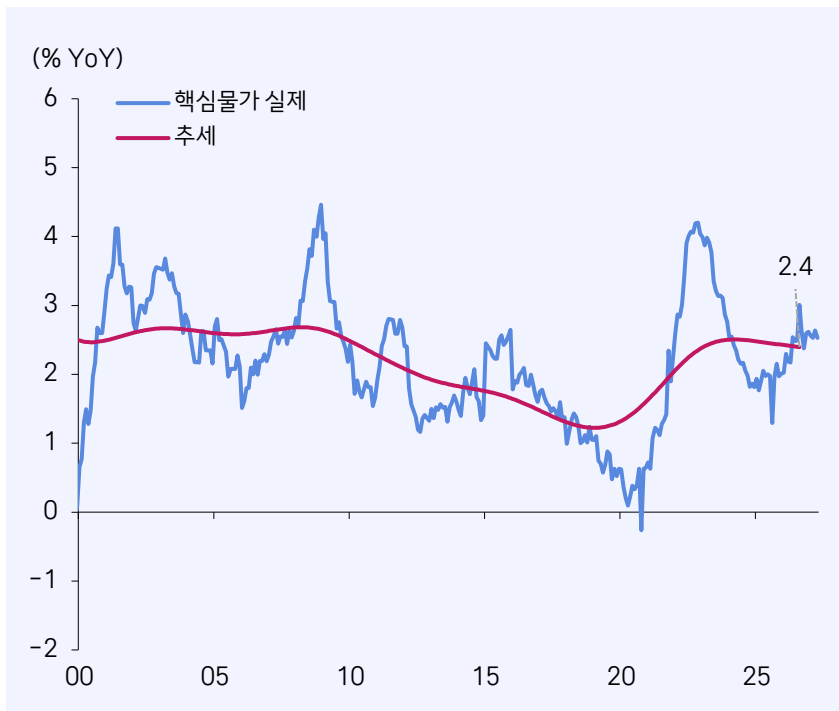
-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투입 영향의 잠재성장률 하향은 그대로 두고, 반도체 훈풍과 투자 사이클에 자본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하향 부분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 25~29년 잠재성장률 0.1~0.3%p 상향 조정 요인



자료: 한국은행,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25년말 한국은행 추산 기준, AI 영향은 저자 추산

물가 또한 추세적으로 2% 상회 국면

- 핵심물가 추세로 2.4%를 가리키고 있으며 내년 1분기까지 CPI갭(실제-추세)이 (+)일 전망. 22~24년 극심했던 저성장, 저물가 우려를 되돌리는 국면
- 반도체 사이클 마무리/중동 긴장 해소에 시간이 필요해보임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26.9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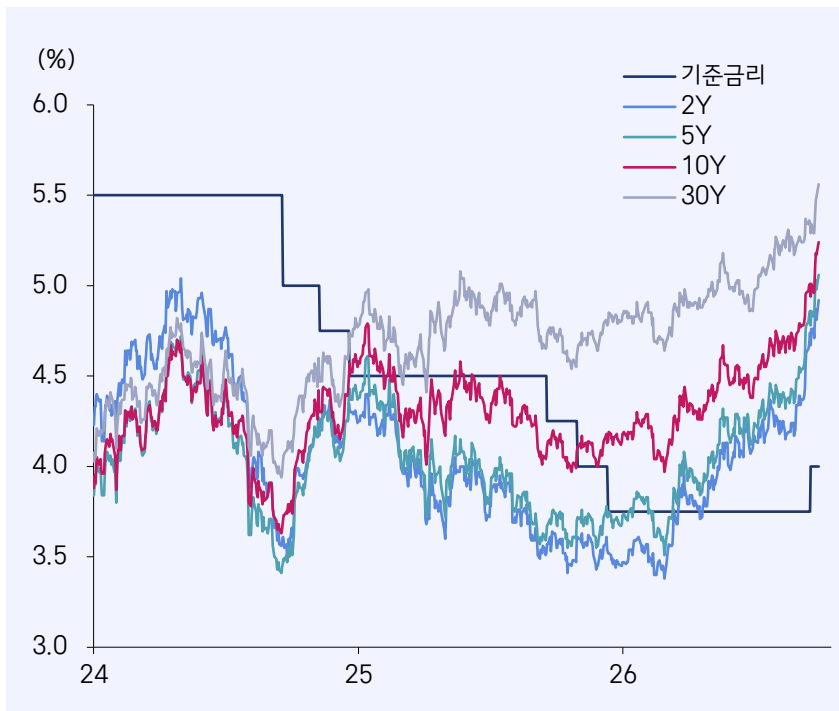
미국 채권

리뷰 금리 상승, 커브는 플랫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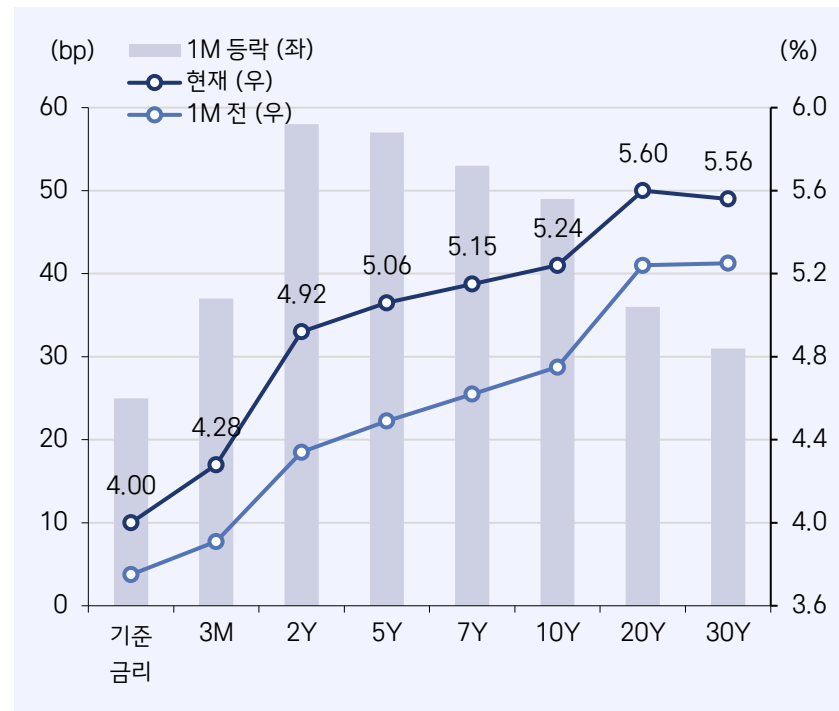
'26.10월 금융시장 전망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단기물 중심으로 금리 큰 폭 상승

- 중동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은 인플레이 압력에 대응하여 9월 25bp 인상 단행, 점도표에서 연내 추가 1차례 인상 시사
- 사우디의 송유관리 피격되는 등 에너지 가격 충격으로 인한 2차 파급효과에 주시하며, 유로존과 일본도 인상 단행
- 베센트의 장기 금리 진정 조치였던 바이백 규모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며 금리 상승 압력 가세. 인상 시작에 따라 커브는 플랫닝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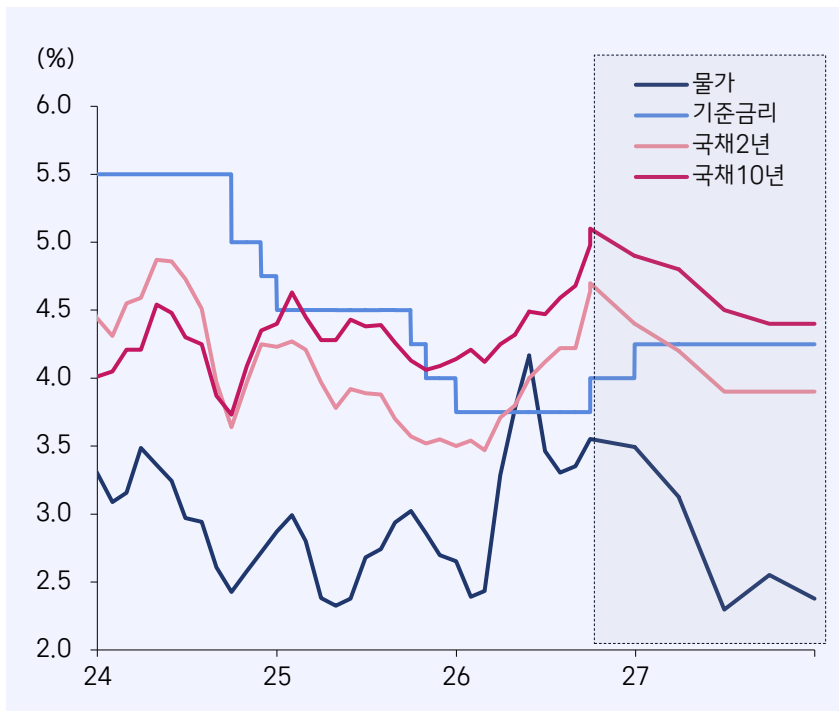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결론 연내 추가 1차례 인상, 듀레이션 중립 전략

'26.10월 금융시장 전망

연내 추가 1회 인상 전망. 기대인플레이션과 텀프리미엄 불안 속 듀레이션 중립 유지

- 연내 추가 1차례 인상 전망. 시점은 12월이 유력하나 10월 가능성도 상존. 내년에는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 동결 기조 예상
- 인상 개시에 따른 상방 압력 존재. 중립실질금리의 하방경직성과 물가 불안이 결합되며 텀프리미엄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
- 듀레이션은 중립 전략 유지. 연내 10년물 금리는 5%대 초반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될 전망. 커브는 스티프닝에 무게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박스 안은 전망치

구분	4Q26	1Q27	2Q27	3Q27	4Q27
기준금리	4.25	4.25	4.25	4.25	4.25
국채 2년	4.40	4.20	3.90	3.90	3.90
국채 10년	4.90	4.80	4.50	4.40	4.40
2/10 스프레드	0.50	0.60	0.60	0.50	0.50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26.10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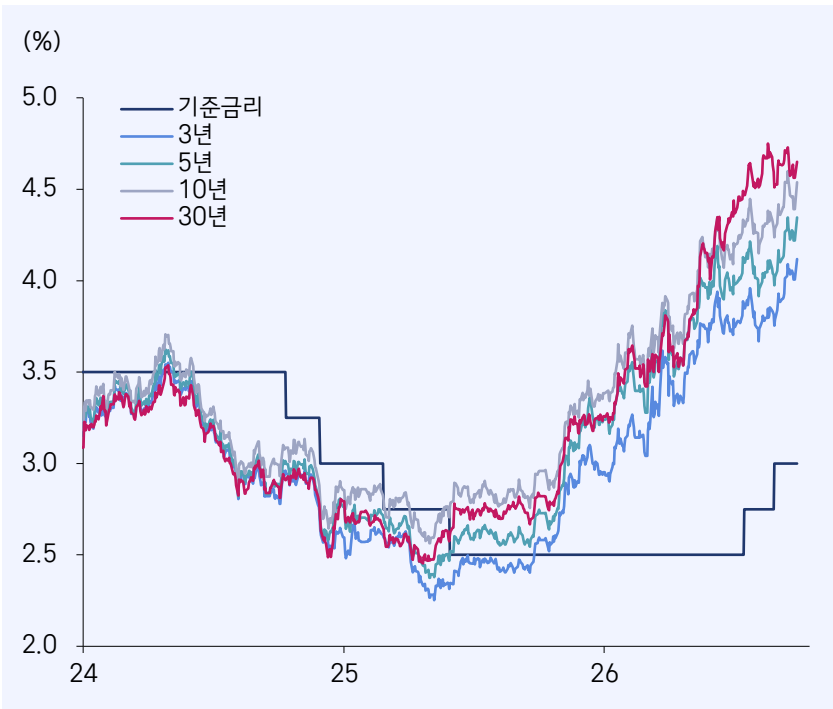
한국 채권

리뷰 금리 상승, 커브는 플랫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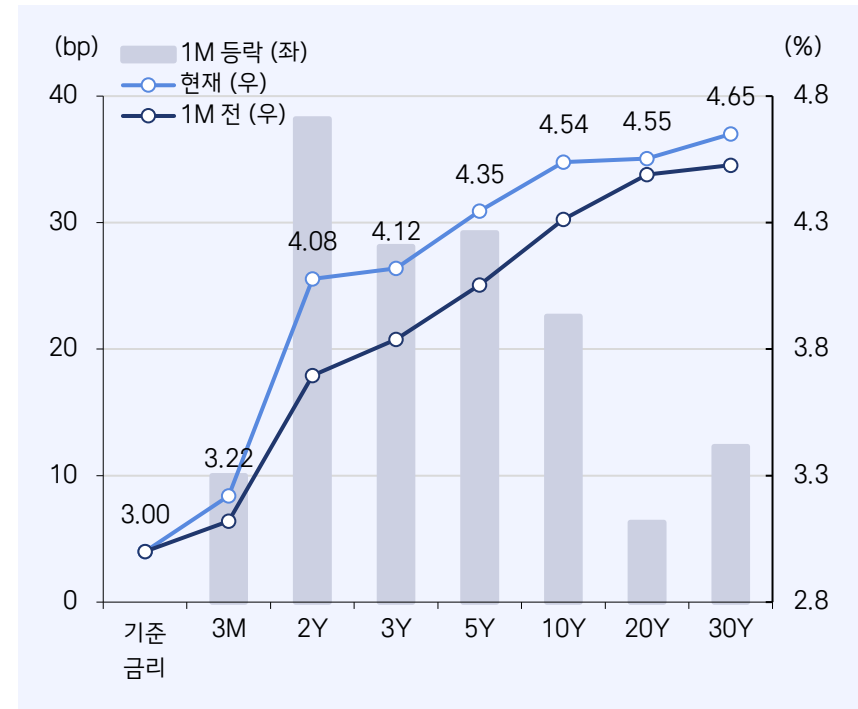
'26.10월 금융시장 전망

글로벌 정책금리 인상 조치와 대외 금리 상승에 연동되며 금리 상승

- 연준과 유로존 ECB, 일본 BOJ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대외 금리에 연동되며 대내 금리 상승
- 중동 긴장이 재부각된 데 더해 WTI가격은 90~100달러/배럴 수준에서 등락하며,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파급 효과 재부상
- 9월은 금통위 회의 부재했으나, 향후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는 지속. 글로벌 인상 기조에 단기 금리 큰 폭 상승하며 커브는 플랫닝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결론 추가 1차례 인상 전망, 듀레이션 중립 전략

'26.10월 금융시장 전망

연내 추가 인상 전망. WGBI 수급 공백 및 대외 상방 압력 속 듀레이션 중립 유지

- 7~8월 연속 인상 후 한은의 속도 조절 의지가 명시됨에 따라 10월은 효과 점검을 위해 동결, 11월에 최종금리 3.25%로 인상 예상
- 대내적으로 인상 마무리 단계이나 대외 금리 상방 압력 잔존. WGBI 편입 완료 이후 외국인 패시브 수급 공백이 발생하는 점도 불안
- 듀레이션 중립 유지. 물가 추가 안정화, 28년 성장률 전망치 등 확인 필요. 커브는 인상 후반기 수준 고려 40bp 수준에서 등락 전망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박스 안은 전망치

구분	4Q26	1Q27	2Q27	3Q27	4Q27
기준금리	3.25	3.25	3.25	3.25	3.25
국고 3년	4.00	3.90	3.60	3.30	3.20
국고 10년	4.40	4.20	3.90	3.60	3.50
3/10 스프레드	0.40	0.30	0.30	0.30	0.30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26.10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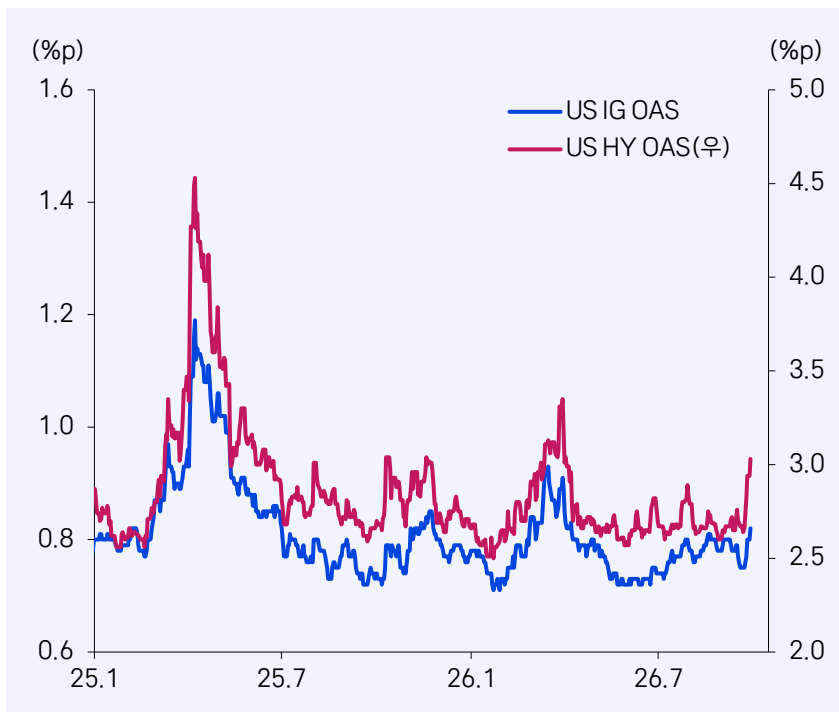
미국 크레딧

리뷰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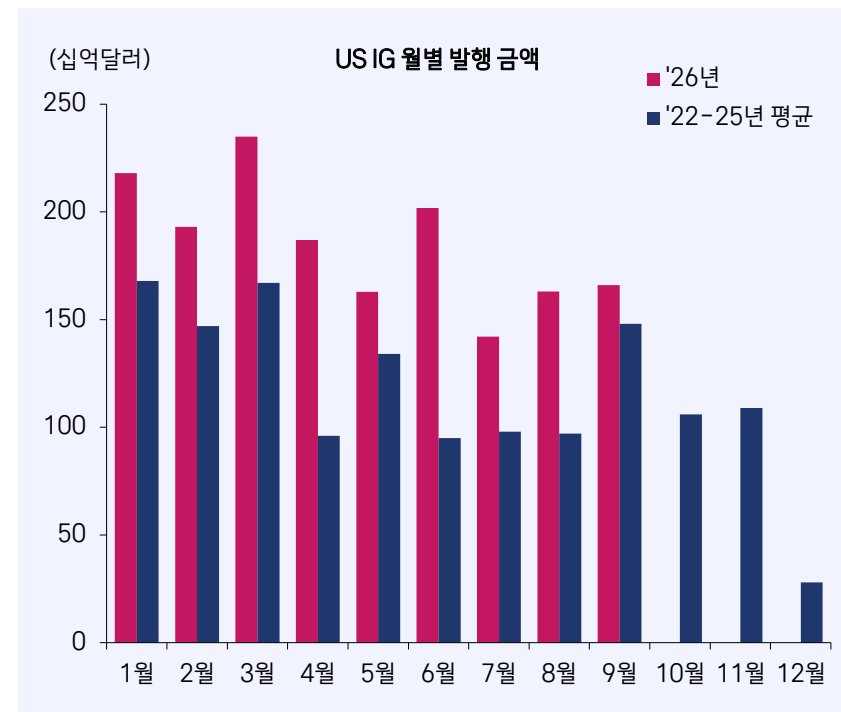
'26.10월 금융시장 전망

기준금리 인상과 유가 상승 등 변동성 증폭되며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 미국 IG와 HY 스프레드는 각각 전월대비 4bp, 42bp 확대. 9월이 계절적 공급 증가 시즌인데 더해 평년 대비 많은 발행량 이어졌음
- 하이퍼스케일러의 양호한 실적에 기반하여 테크 섹터는 상대적으로 강세 전개됐으나 SI관련 채권 발행 우려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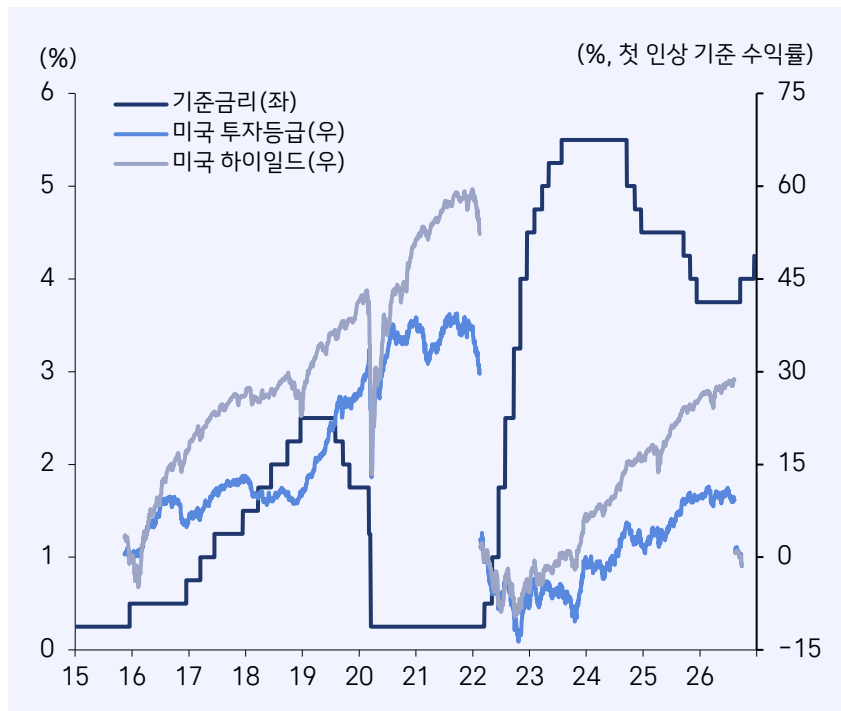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결론 스프레드 확대 전망, 듀레이션 축소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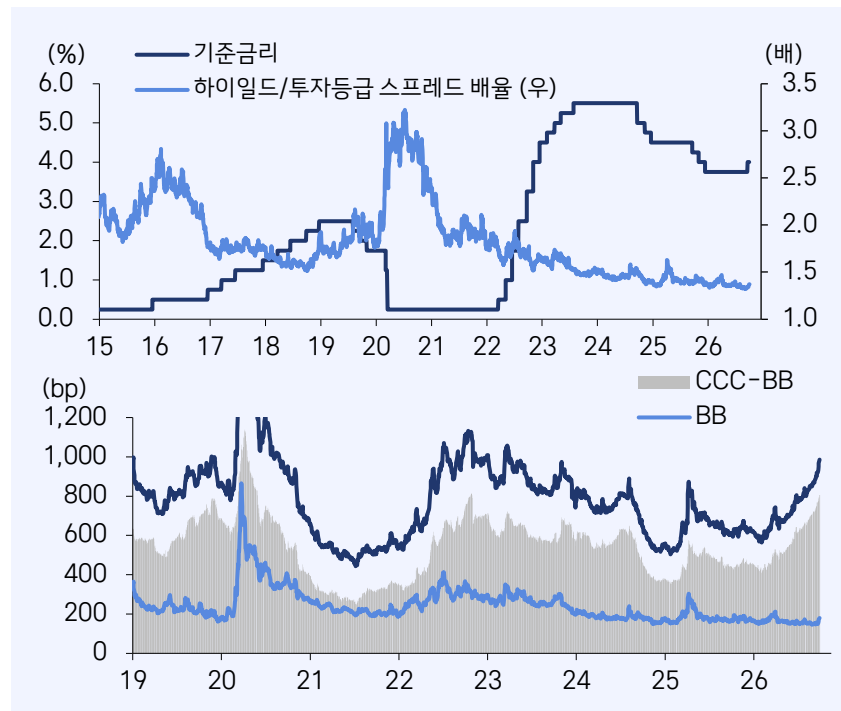
'26.10월 금융시장 전망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크레딧 스프레드 추가 확대 전망. 듀레이션 전략 축소 제안

-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 변동성 확대 불가피. 15년 완만한 긴축과 22년 고강도 긴축 모두 미국 크레딧 수익률 악화
- 역사적으로 하이일드/투자등급 스프레드 배율 낮아진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로 하위등급 부정적 영향 확대되는 모습 포착
- 미국 크레딧 투자전략 듀레이션 축소로 변경. 미국의 인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스프레드 추가 확대 압력에 주의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9.28일 기준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대표전화 : 02-3774-7600 콜센터 : 080-377-4777 [상담시간안내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